

# ‘위기’는 ‘기회’, 회원사 단합으로 도약의 발판 마련

제주특별자치도회는 지난 3월 개최된 제29차 정기총회에서 동원설비(주) 현동수 대표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현동수 회장은 장영흥 전임회장의 잔여임기를 대신하여 내년 2월까지 제9대 회장직을 수행한다. 현동수 회장은 그동안 제9대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장영흥 회장과 함께 호흡을 맞추어 협회의 제반 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현동수 회장은 “잔여임기 동안 제9대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제주특별자치도회 현동수 회장



## 회장으로서 소감

제주특별자치도회를 오랫동안 이끌어 오시던 장영흥 회장의 갑작스런 사임에 따라 지난 3월 30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9대 부회장으로서 장영흥 전임 회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함께 도회 업무에 관여하였기에 협회의 제반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장영흥 전임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회원사의 화합과 상생, 그리고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원도급 영역 확대, 하도급 공사의 지역 업체 참여 비율 확대 등의 사업에 역점을 두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주도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과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한 귀농·귀촌 인구 급증에 따른 주택과 교육시설의 확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역사 이래 최대의 호황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회 회원사의 공사수주가 활발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나, 한마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공사 물량이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들 대부분이 외지 업체에서 수주·시공함으로써 우리 도회 회원사의 공사 수주는 건설경기 활황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회는 지역 의무공동도급 비율 확대 등 우리 도회 회원사의 공사 수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지역 특성상 공사 원가가 타지역 대비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저가투찰을 지양토록 회원사를 계도하는 한편, 원도급 확대를 위해 제주특별

자치도개발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계설비업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과 함께 부족한 기능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제주지역의 투자 및 개발 열기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도회 회원사 모두가 재도약 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제주의 특성을 감안한 공사 수주

제주는 개발 열기로 인해 공사물량은 많지만 노무비 급등, 숙식비용 증가, 자재 구입비의 추가 소요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한 물가가 육지에 비해 30% 이상 높아서 공사 실행단가 증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이러한 특성을 도외시 한 외지 업체의 경우 육지에서 시행되는 공사와 같은 단가로 공사를 수주하는 우를 범하여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해당 업체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고 종합건설업체로부터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결국에는 제주지역 회원사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회원사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대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회는 제주에 진출코자 하는 외지 업체에게도 입찰 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저가투찰 지양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 대학 강단에서 기계설비 적극 홍보 및 기능인력 활성화 방안 모색

저는 한라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겸임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설비·환경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기계설비가 건축물의 '신경과 혈관'임을 특히 강조하며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저에게 교육받은 학생들이 향후 현장에서 실무에 임할 때 기계설비와 건축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 기계설비는 타공종에 비하여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풍토는 학부에서 건축 분야를 공부할 때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부 때부터 기계설비를 비롯한 타 전문분야도 중요하다는 공부를 한다면 향후 그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공종 간 상생협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최근들어 제주도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으나 기계설비 분야의 기능인력 유입은 저조할 뿐만 아니라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존의 숙련공 또한 고령이어서 점차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대학교에 기계설비 관련 학과는 고사하고 기능인력 양성기관조차 없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기계설비 기능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여건이 시급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우리 도회에서는 기능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도내 소재 폴리텍대학에 설비관련 기능공 양성을 요청해 놓은 바 있으며 향후 본회와 함께 기능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및 각 대학과의 산학협력 등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원도급 수주 확대 및 지역의무공동도급비율 확대

우리 도회는 기계설비의 원도급 수주환경 조성을 위해 전임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사가 힘을 모아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국립대학의 기계설비 공사는 100%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도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전문·전기·통신 등 건설 유관단체와 연합하여 일정 비율을 지역 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기계설비 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 가능한 제주지역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 회원사 화합 및 기계설비 이미지 개선 노력

기계설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부 구성원의 화합이 우선입니다. 제주 사람들은 알고 보면 친인척 이거나 몇 다리 건너 친구 및 선후배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 말로는 '꿰당'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제주 사람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에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주도만의 화목하고 끈끈한 유대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단합대회와 친목모임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여 회원사간 소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회가 전국에서 단합이 가장 잘 되는 도회라고 생각합니다. 상생과 조화를 통한 업계 발전을 위해 서로 간에 출혈경쟁을 삼가하고 선의의 경쟁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분위기 만 들고자 회원업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사의 시공품질 향상을 통해 기계설비 이미지 제고 노력, 각 회원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 공유 및 회원사 임직원 교육 등 각종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회는 책임 있는 지역 사회 단체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분리발주 및 적격심사로 수주한 공사의 일정액을 특별회비로 각출하여 '작은 사랑의 씨앗 운동본부'에 기탁해 오고 있으며, 이 성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지원토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기업으로서 '재능기부'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 회원사에 한마디

우리 제주도회는 지난 20여년의 시간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3배 이상 회원사가 증가하고 기성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였지만 우리 도회 살림은 여전히 옹색하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 도회는 큰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공제조합의 보증센터 개설에 따라 제주출장소가 폐쇄되어 내년에는 조합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현 사무실을 이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도회는 본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스스로 도회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란 말이 있듯이 이 위기를 통해 우리 도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회장으로 추대하여 주신 회원사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남은 임기 동안 제9대 집행부에서 수립했던 여러가지 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하여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지역의 활발한 개발 기회를 잘 활용하여 우리 회원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회원사의 소통과 화합이 증진될 수 있도록 협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현동수 회장은

- 1955년생
- 울산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졸업
-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주시회 감사 역임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주시회 부회장 역임
- 現 동원설비(주) 대표이사
- 現 제주 이어도 자활후견기관 운영위원
- 現 대한건축학회 정회원/제주지회 감사
- 現 제주 한라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겸임교수
- 국토해양부 장관 표창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표창
- "울산대학교를 빛낸 40인"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표창